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 : 율법, 믿음, 기도

I. 1536년 판 강요가 나오기까지

A. 기독교 강요 초판의 전주곡 -1

1. 프랑스 복음주의자들의 딜레마

(1) 1533년 니콜라스 콥 파리대학총장 취임식

✦ 마태복음 5:1-12 말씀 가지고 강해 결론 발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마 5:11)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진리를 담대히 말하지 않고 감춥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몸은 죽이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습니까?

I. 1536년 판 강요가 나오기까지

A. 기독교 강요 초판의 전주곡 -2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흘려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분의 이름 때문에 가장 미미한 고난을 받는 것조차도 꺼려 하는 인류의 배은망덕함이며! 세상과 사악한 자들은 신자들의 마음에 복음으로 순수하고 진지하게 침투하려고 하는 자들을 이단, 사기꾼이라고 불러 왔습니다...

그러나 환란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을 견디는 자들은 복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I. 1536년 판 강요가 나오기까지

A. 기독교 강요 초판의 전주곡 -3

취임사 반응: 콥과 그 설교 원저자로 주목받은 칼빈은 파리에서 도망쳐야 했다. 왜냐하면 프랑스왕 프란시스 1세가 다음 교서를 의회 보냈기 때문이다. “우리 왕국 최고 대학에 저주받을 루터파 이단들 득실거린다.

더 이상 확산되는 것 막기 위하여 모든 대책 강구하라.”

그들의 대책은 복음신앙 가르치는 자들, 동조하는 자들 붙잡아 공개적 화형시키는 것.

프란시스 1세는 우유부단, 주변 개신교도 군주들과 필요따라 평화협상 했으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차별하게 개신교도 핍박. 불안정한 군주.

I. 1536년 판 강요가 나오기까지

A. 기독교 강요 초판의 전주곡 -4

(2) 종교개혁 핵심적 논쟁은 성만찬 논쟁.

당시 천주교회는 화체설 주장, 이 주장 공식화는 토마스 아퀴나스.

미사와 사제, 수반되는 기적은 중세교회 체제 기둥.

일곱가지 성례제도, 면죄부, 공덕사상, 성자 기도등 당시 가르침 의심하면, 교회 국가 의해 공격 받게 됨.

I. 1536년 판 강요가 나오기까지

A. 기독교 강요 초판의 전주곡 -5

14세기 화체설 대항한 위클리프의 개혁운동을 당시 교황권은 약화 분열상태임에도 저지. 성만찬 개혁하려는 후스의 온화한 노력도 정죄 받아 후스는 1415년 순교.

1517년 루터는 이 성역을 문제 삼음. 1520년 그의 논문 「교회의 바빌론 유수」는 중세교회 체제에 결정적 일격 가하여, 억압적 비성경적 교회교리에 대한 비평이 봇물 터지듯 나오게 함.

왕은 자신의 정치적 계획과 종교적 평화에 위협 느낌.

I. 1536년 판 강요가 나오기까지

A. 기독교 강요 초판의 전주곡 -6

2. 칼빈의 세네카 주석 (1532)-프란시스 1세에게 보낸 최초 변증서인가?

어떤 학자들은 세네카 주석을 회심전 글로 「기독교강요」와 상관 없다고 이해. 포드 베틀즈는 이 저서가 칼빈 순례 첫걸음으로 간주.

1536년판 「강요」는 이러한 이해 뒷받침.

「강요」는 프란시스 1세 헌정한 유명한 편지로 시작.

칼빈이 프랑스 개혁주의 동포들 위해 1535년 격랑기 왕에게 보낸 유창한 변증문.

전체적으로, 이 편지와 그 뒤 신학 논문, 특히 마지막 장은 프란시스에게 그리스도인 군주의 모델 제시.

I. 1536년 판 강요가 나오기까지

A. 기독교 강요 초판의 전주곡 -7

3. 칼빈의 신학적 순례의 첫 단계

그의 회심 일자 정확한 계산 불가능.

존 맥네일 (John McNeill)은 1534 4월 5일과 1534년 5월 4일 사이라고 추정. 이는 칼빈이 자신의 성직록을 포기하기 위해 피카르디 노용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이다.

I. 1536년 판 강요가 나오기까지

B. 칼빈의 회심 내용과 성격에 관한 고찰 -1

1. 문헌에 나타난 그의 회심

다소 후대에 쓴 그의 시편 주석에서 아주 간단히 직접적으로 자신 회심을 언급한다.

1536년 기독교강요 제 1 장 첫 부분, 그리고 베에르 로베르 신약 서론에 보면, 칼빈의 경건한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분께 감사하는 것이 칼빈의 경건 중심 주제.

I. 1536년 판 강요가 나오기까지

B. 칼빈의 회심 내용과 성격에 관한 고찰 -2

그의 신앙을 지탱해준 성경은 로마서와 시편.

칼빈이 쓴 최초 주석은 로마서 주석.

기독교강요 자체가 로마서 주석 확대.

로마서와 시편을 기독교강요에 가장 많이 인용:

최종판 로마서 598번, 시편 580번 인용.

성경은 칼빈 회심 도구. 그 속에서 자기의 종교적 성품을 형성한 양식과 인문주의의 법률적 정신에 공감되는 문서 발견.

I. 1536년 판 강요가 나오기까지

B. 칼빈의 회심 내용과 성격에 관한 고찰 -3

2. 신학적으로 재조명해 본 그의 회심—구원의 역사

부처와 파렐 격려 얻은 그의 사촌 뵘에르 로베르는 1535년 2월 12일 신약성경을 불어로 번역 완수, 1535년 6월 4일, 노이샤텔에서 출판.

칼빈은 그 책 위해 두 개 서문을 불어와 라틴어로 바젤에서 씀.

이 때 그는 이미 기독교강요를 전심을 다해 쓰고 있었다

(1535년 8월 23일 완성. 1536년 3월 출판).

신약서문에서 바울과 어거스틴의 인간이해를 요약한 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심과 양심 (이방인)과 율법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 자비 계시, 인간의 배도, 구주의 오심, 복음의 부르심 제시. 이 서문은 왕들과 관원들, 주교들과 목사들에게 복음의 올바른 전파와 교회의 건전성을 지지하라고 호소하며 끝맺는다.

I. 1536년 판 강요가 나오기까지

B. 칼빈의 회심 내용과 성격에 관한 고찰 -4

칼빈이 철학자들 지혜를 추구하는데서 돌이키도록 만든 결정적 계기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칼빈 고백. “우리가 생각하거나 바라는 모든 것, 우리가 표현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모든 성경은 우리를 불러 그 분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한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죄인 사이 간격을 일깨워 준다.

I. 1536년 판 강요가 나오기까지

B. 칼빈의 회심 내용과 성격에 관한 고찰 -5

하나님 지식: 하나님은 무한히 의로우시며 자비. 모든 것 그 분 영광위해 창조됨.

우리에 대한 지식: 모든 덕 가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 지워지고 말소됨. 아담에게서 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 그의 뜻 행하기에 무력, 영원한 죽음 받기 합당.

자비한 아버지는 양심법, 기록된 법 주심.

우리가 율법 요구를 이루지 못함으로 영원한 죽음 저주 받아 마땅.

I. 1536년 판 강요가 나오기까지

B. 칼빈의 회심 내용과 성격에 관한 고찰 -6

막다른 골목 처한 우리에게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선물을 주신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하여,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그 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축복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II.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

A. 교리문답서인가 혹은 변증서인가? -1

1. 원래의 의도는 교리문답서

칼빈이 회심한 후 성경연구를 시작했을 때 그가 직면한 큰 임무는 참 신앙을 갈구하는 복음주의자들을 지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훌륭한 교리문답서를 작성할 필요를 크게 느꼈다. 1535-1536년 바젤 체류기간, 첫 신학연구가 결실을 맺어 출판하게 된 것이 기독교강요이다.

아래 긴 책 제목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한다.

“기독교 강요, 구원론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제반 사항과 경건의 개요를 거의 망라하였다. 경건에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일독할 가치가 충분한 저서이다.”

II.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

A. 교리문답서인가 혹은 변증서인가? -2

칼빈은 프란시스 1세에게 보낸 서한 첫머리에 저술 의도를 밝힌다.

“...오로지 본인의 목적은 종교적 열정을 지닌 사람들이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확실한 기본원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간단하고 초보적 교리 형태.”

칼빈은 교리문답서를 만들려고 한 것. 박해받는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위하여 외국 공감 불러 일으키려고 당시 국제 공용어 라틴어로 썼으나, 프랑스 동포들에게 적합하도록 1539년 개정판을 불어로 1541년 출판.

불어가 세계적언어로 아름답다고 인정받음은 칼빈 기독교강요 문체 영향.

II.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

A. 교리문답서인가 혹은 변증서인가? -3

2. 기독교강요가 변증서로 된다.

프란시스 1세는 당시 프랑스에 발흥하던 혁신적 경향이 국가와 교회 위협하는 이단이라고 단정한 소르본느대학측 견해 동의.

그들 운동을 국가 내적 질서 대항하는 무정부적 행동과 반란으로 정죄, 이 관점은 프란시스 1세가 독일 개신교도 군주에게 보낸 각서에 잘 나타나 있다. 거기서 그는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독일개신교도들과 다른 재세례파와 같이 선동적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다.

II.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

A. 교리문답서인가 혹은 변증서인가? -4

진정한 복음주의자들은 급진적인 복음주의자들과 어떻게 다른지, 칼빈은 두 가지 형태로 답. 1534-5에 써서 1542년에 출판한 「사이코파니아」와 1536년 펴낸 기독교강요. 「사이코파니아」에서 영혼사멸설 주장하는 광신자들과 달리 복음주의자들은 영혼불멸설 믿음 강조. 하나님 영이 영생 하시듯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 영혼도 불멸한다는 가르침. 칼빈이 기독교강요를 쓰게 된 동기는 두 가지. 신앙형제들 위한 교리문답서 필요성과 박해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형제들의 실상을 왕에게 탄원하고 알려야 하는 필요성.

그의 신학적 대응. 제도적 로마 카톨릭 거부와 동시 극단적 분파 배제.

II.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

B. 프랑스 왕에게 드리는 헌사-1

1. 기독교 변증들 가운데 하나

초대교회 변증가들처럼, 칼빈은 변증적 노력으로 실제 신앙을 새롭게 종합.

복음적 신앙을 신종이라고 악평하는 소르본느대학 신학자들에 대항하여 그는 이것이 진정 사도적 메시지이며, 그들 신학이야말로 말기적 변종이라고 주장.

프랑스 복음주의자들은 군주정체 전복하고자 획책한다는 비방에 대해서, 칼빈은 복음주의자들의 정치적 충절 확인시킴.

프란시스 1세에게 보낸 칼빈의 편지는 저스틴, 터툴리안, 유세비우스 등의 변증서와 일치.

II.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

B. 프랑스 왕에게 드리는 헌사-2

2. 헌사의 내용

1559년 판 8 부분.

- 1) “본서를 쓰게 된 배경” 두 가지 저술목적 기술, 왕 관심 촉구.
- 2) 박해받는 복음주의자들 탄원.
- 3) 카톨릭 교도들 개혁신앙비판--새롭다, 미지, 불확실, 기적확증 없었다--대해 반론.
- 4) 교부들 개혁주의 지지 않는다는 주장에 오히려 카톨릭신앙이 교부들과 배치됨 보임.
- 5) 카톨릭 교회론 오류 열거, 교회 본질 논증.

II.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

B. 프랑스 왕에게 드리는 헌사-3

- 6) 카톨릭교회만 참 교회라는 주장 반해, 칼빈은 순수한 설교, 합법적 성례가 참 교회라는 바울의 교회 표지 주장 지지.
 - 7) 복음전파로 소란 변혁 일어났다는 주장 답변.
 - 8) 마지막 자기 호소가 왕에게 전달되어 왕 움직임 가망성 가능.
- 세상군주 복종이 반드시 하나님 불순종 아님 보이고, 동시에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 기독교강요 뼈대.

칼빈은 로마카톨릭과 재세례파 극단주의자들이라는 두 전선을 앞에 두고, 복음주의자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왕에게 그들을 변호하기 위하여 긴박한 상황에서 저술함.

II.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

C. “교리문답식” 장들 (1-5장)의 분석 -1

중세 문답식 관례따라 칼빈은 기독교강요를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례** 순서로 구성. 미사를 논박하고, 거짓성례를 드러내며, 끝으로 기독교인의 자유와 교회의 권능, 정치 권력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으로 끝맺음.

1. 1장. 율법에 관하여. 십계명 해설부터 시작. 제 3, 4, 5, 10은 적용 실례를 들어 충분히 논의. 나머지 계명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결론부분에 율법의 효과와 칭의에 대한 가르침을 다룸.
2. 2장. 믿음에 관하여. 믿음의 본질, 삼위일체에 관한 신학논문, 사도신경해설. 로마카톨릭, 재세례파, 반삼위일체론자에 대한 비판을 2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다.

II.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

C. “교리문답식” 장들 (1-5장)의 분석 -2

3. 3장. 기도에 관하여. 주기도문 해설.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수다한 인간중재자 대조. 카톨릭 예배의 허구와 복음주의 예배의 순수성을 대조한다.
4. 4장. 성례에 관하여. 네 단락으로 나눔. 첫 세 단락은 1559년판 14-18장과 일치. 먼저 성례를 개괄하고, 세례와 성찬, 그리고 결론부분에 두 가지 주의 성찬 집행을 논의한다.

성례 전반 입장은 쾰링겐리와 카톨릭 견해 중간 위치. 그는 성례를 믿음의 증서에 찍힌 “봉인”으로, 하나님께서 박약한 인간의 이해력을 도우시려고 만드신 것이라고 강조. 세례에 관해서 재세례파와 도나투스파적 주장 및 카톨릭 견해를 모두 반박. 한마디로,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상징”이라는 쾰링겐리 견해를 암시.

II.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

C. “교리문답식” 장들 (1-5장)의 분석 -3

성찬에 관한 논의에서 뚜렷한 특징. 첫째, 성찬에 대해 그때까지 모든 논의를 섭렵하며 소화하여 정리. 둘째, 이해결문제 지적. 셋째, 칼빈은 다양한 분파들을 알고 앞서가면서 충분히 신학적으로 논쟁.

성찬에 대한 기존의 두가지 견해의 오류 지적. 성례 존엄성 지나친 강조는 미신으로 이끌기 쉽다. 성례 가치 유익 무시하면 성례 경멸도 용납될 수 없다. 칼빈에 의하면 성찬 논쟁은 잘못된 질문,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가?”에서 비롯됨을 지적. 칼빈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것으로 되는가?”라고 질문해야 한다고 강조.

칼빈은 여기서 미사송배나 카톨릭 고행을 거부하며, 완전한 속죄 이룰 수 있다는 재세례파의 오류도 거부한다.

II.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

C. “교리문답식” 장들 (1-5장)의 분석 -4

칼빈은 천상과 지상 사이 무한한 심연을 연결하는 하나님 능력의 임재를 “마치” 육체적 현현인 것 “처럼” 받아 들인다.

성례는 믿음과 별개도 아니며, 성례 자체가 믿음의 역사를 하는 것도 아니다. 믿음과 성례는 협력. 올바른 성례 집행은 성경의 권위로 분별.

5. 5장. 다섯가지 거짓성례에 관하여.

카톨릭교회의 잘못된 성례론과 의식들을 비판한다. 견진례, 종부성사, 혼인성사는 짧게 다루고, 고해성사와 신품성사는 상세하게 다룬다.

이 장과 6장 중간부 교회 권능 편에 칼빈은 중세교회체제 토대 핵심을 상세하게 논파.

II.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

D. 6장: 프란시스 1세에게 보내는 서한의 결론인가? -1

1. 개괄인 고찰

프란시스 1세에 대한 헌사와 1536년 기독교강요 최종장을 비교해 보면, 6장이 왕에 대한 탄원의 사실상 결론임을 알 수 있다. 1-5장은 칼빈 원래 의도대로 교리문답서, 세 단락으로 구성된 6장은 특별히 왕에 대한 호소와 관련되어 있다.

첫단락 “기독교인 자유”에서 자유가 세속적이 아니라 영적 영역에 속한 것임을 성경을 근거로 설명. 둘째 “교회 권능”부분에서, 칼빈은 인간이 고안한 교회법과 관습은 자유를 침해함으로 거부하며, 또 카톨릭제도가 세속권력 일부까지 탈취하였음을 왕에게 논증한다.

II.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

D. 6장: 프란시스 1세에게 보내는 서한의 결론인가? -2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와 자기 영내를 다스리는 세상 군주, 두 왕이 있다는 것이다.

세상 권세와 관련된 세 번째 부분 “세상 정치”에서 복음주의자들의 정치적 충성을 지적하며, 재세례파의 잘못된 견해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전적 거부를 왕에게 주지시키며, 궁극적으로 영적 결정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6장에서 프란시스 왕에게 칼빈은 복음주의를 옹호하면서, 소르본느대학 신학자들의 악영향으로부터 왕을 분리시키기 위해 그들 신학을 반박한다.

II.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

D. 6장: 프란시스 1세에게 보내는 서한의 결론인가? -3

2. 세부적인 내용

A. 기독교인의 자유

자유문제는 6장의 중심적 주제이다. 전장에 걸쳐, 칼빈은 법률조항을 계속 늘려가는 것과 법을 모두 거부하는 것 사이 중도를 주장한다. 교회의 불법적 규제에 묶이지 않아야 함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무질서한 방종으로 치달게 하는 잘못된 영적 자유를 반대한다.

칼빈은 기독교인의 자유를 세가지로 분류한다: 법으로부터 자유, 법의 강요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양심의 자유, 그리고 아무래도 좋은 것들에 대해 처신할 수 있는 자유가 그것이다.

II.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

D. 6장: 프란시스 1세에게 보내는 서한의 결론인가? -4

이러한 자유는 연약한 형제, 이웃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제하며 사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안된다. 칼빈은 인습으로부터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영적 통치와 세속적 정치적 통치를 구분한다. 기독교인의 자유 부분은 두 왕국에 대한 논의의 서론격.

II.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

D. 6장: 프란시스 1세에게 보내는 서한의 결론인가? -5

B. 교회의 권능

교회 규율에 대한 칼빈의 관점은 교회 규율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급진적 재세례파나, 무조건 수용하는 카톨릭교도들의 관점과 다르다. 주로 카톨릭 주장을 성경적, 역사적 반증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II.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

D. 6장: 프란시스 1세에게 보내는 서한의 결론인가? -6

C. 세상 정치

본서 마지막 주제인 “세상 정치”에서 재세례파를 자세하게 다룬다. 칼빈은 프랑스의 충성스러운 복음주의자들의 신앙을 변호하고, 군주로서 직무상 처신하는 방법을 프랑스왕에게 가르친다. 먼저 세상 정치 필요성을 논의하고, 영혼과 육체에 관한 재세례파의 오류는 정치적 함의도 지니고 있음을 보인다. 영혼, 육체, 유아세례, 영적 정치적 영역 구별은 모두 동일한 의미 내포. 따라서 칼빈이 참신앙을 확립하고 보호하는 것이 세속 권위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이는 모든 통치체재를 거부하는 재세례파와 또 통치체재를 횡령하는 카톨릭을 의식하고 기술. 칼빈 자신이나 제네바시의 문제에 있어서, 그는 정교하게 교회와 정부의 균형을 지켰다.

II.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

D. 6장: 프란시스 1세에게 보내는 서한의 결론인가? -7

세상정치를 다루는 둘째항은 “관원”, “법률” “백성” 세부분.

관원들을 “신같은” 지배자라고 하면서 관원들에게 고도의 수준 요구. “통치권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스러운 것”으로 이 거룩한 일꾼을 대적하는 혁명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보인다. 칼빈은 재세례파의 잘못된 성경유추 및 적용을 분석하고 관원과 백성의 상호작용을 구별하는 성경적 원리를 설명한다.

관원은 공공 안전과 평화유지 임무수행을 위해 합법적으로 사형을 판결 하여, 하나님 심판 대행할 수 있다.

정부가 올바르게 지도하려면, 과도해도 안되고, 관대함을 과장해서도 안된다. 왕은 분노, 탐욕 조절해야함. 국고는 백성들의 피.

II.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

D. 6장: 프란시스 1세에게 보내는 서한의 결론인가? -8

세상 정치, 법률편에 세네카와 내용 유사.

정통적 견해를 복음주의적으로 재정립.

법률편에서 일부 과장된 견해 논박 후, 그 대안으로 유명한 구분 제시.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 세 층. 도덕법은 자연법, 양심법, 의식법은 1, 5, 6장 2부에서 다룸. 재판법 주로 설명.

공평함이 모든 법률의 목표요 한계.

최후 주제는 백성. 관원과 법률은 이들 위해 존재. 고린도교인들 지나친 소송욕, 재세레파의 재판경시, 두 극단적 예. 하나님 주신 관원과 법정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하여 사용할 것.

II.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

D. 6장: 프란시스 1세에게 보내는 서한의 결론인가? -9

신민이 어떻게 군주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언급. 프란시스 1세와 그 동포들에게 동시에 말함. 관원은 하나님 대리인이므로, 그가 어찌하든지 그에게 복종. 사악하거나 압박하는 지배자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보복.

그러나 칼빈은 프란시스 1세와 박해받고 있는 복음주의자들에게, 진정한 왕은 오직 한 분이심 상기. 지배자에게 복종하기 위해 하나님께 불복종해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우리는 마땅히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책 마지막 몇줄은 헌사 종결부 재반향.